

在日大韓基督教會
宣敎80年을 향한 標語

1. 새 세대에 교회를 형성하자
2. 재일동포의 새로운 삶을 지향하자
3. 세계역사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자



THE GOSPEL NEWS

1月15日(水) <1986年> 第426号

発行所 福音新聞社

160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電話 03(202)5398番

発行人 金信煥・編集人 李大京

毎月1回 15日発行 購読料 1部 50円

昭和38年9月20日第3種郵便物認可

印刷所・青丘文化社

宣敎80周年을 앞두고 100教会 達成을



在日同胞의 새로운 삶을 指向하자

신년 메시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전 하나님의命令

總會長 金信煥



시는 일에 동참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 해악한 일에 대하여 몇가지만 중점적으로 적어볼까 합니다.

(1)전도·총회가 선교八十周年을 맞이한 一九八八年까지 百교회운동을 해왔습니다. 一九八一年에는 二十七個四十六개회의 교회와 전도소가 있었읍니다. 一九八五年에는 七十一교회와 전도소가 되었읍니다. 이 二년동안 새로 목사, 장로가 되어 정기총회에 총대로 참석한 분이 二十七명이나 증가되었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이서 교회청년의 육성과 확충을 위하여 노력 잊기를 기대합니다.

(2)청소년부제·텔레비죤이 보급된 후, 주일학교가 약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부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청소년부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청소년부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을 그날까지 뜻있는 일본사람들과 연대하면서 「이 곳에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 함께 전진하기를 소원합니다.

일본명에 한국사람으로 태어난 청소년들이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사는 것같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사회에 절망해서 자살한 고등학교 학생들도 있었읍니다.

총회는 약합니다. 사회국은 약합니다. 한 일은 태산 같읍니다. 교회는 소수자입니다. 그러나 믿고 전력을 다할때에 밝은 세계가 약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었읍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빛의 자녀로 행할 때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있게 하는 일들을 할수 있다고 믿읍니다.

올해 일년동안 총회산하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받은 사명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총회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축성으로 축원합니다.

총회가 선교七十八周年을 맞이한 우리는 선교의 중추대한 사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먼저 회개해야 할 줄 압니다. 주님에만 영광을 돌리는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였는데 너무나 자기를 높게 하지 않았는가 반성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싶습니다.

이 일년동안 그리스도를 본받고 이세상으로 나가서 「새 일을 행하시라」이하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대의 명령입니다. 우리 동포가 죽기전에 한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과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작년에 특기할 일은 관서 지방회가 두 지방회로 분리된 것입니다. 다른 지방회와 교회수도 비율을 맞추어서 출발하게 되어 총회내에 다섯 지방회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인구비율로 볼 때 관서동부나 관서서부도 다른 지방회와 비교해서 동포수가 많으므로 열심히 전도하고 다른 지방회를 더 분립시켜주 있도록

謹賀新年									
關東地方會									
橫濱	川崎	調布	東京	品川	東京	西新	船橋	浦和	水戸
長牧	長牧	長牧	長牧	長牧	長牧	長牧	長牧	長牧	長牧
金李尹	金金李	姜	李崔柳鄭	金高	朴宋康李尹權沈金吳	金金金	金金金	吳	森田日出夫
連永宗	鴻聖仁	榮	炯良尚然	慶完	憲正景東官泰恩君允	太漢鍾	教富	京道	福
伯欽銀	會植河夏	會一	會埃元熙元	會得喆	會重	會昇漢治和炳岳澤植台	會然弼武	會仁	會世所

